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새만금사업의 종단을 촉구하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삼보일배 행진과 전라북도지사의 식발과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로 뜨거웠던 새만금사업의 논란은 지난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 방침의 재확인과, 사업으로 확보되는 간척지 대부분을 농지로 활용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조명해보기 위해 '리플을 달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독자를 만나러 간다. 이번호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찬·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반시민들의 생각을 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새만금간척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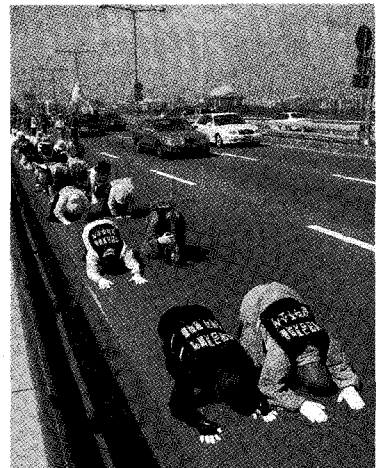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 개발면적 : 40,100ha - 여의도의 140배 규모  
(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 사업기간 : 1991년-2011년(외곽시설 16년, 내부개발 5년)
- 사 업 비 : 3조 2,570억원(외곽시설비 : 1조 9,418억원, 내부개발 : 1조 3,152억원)

새만금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 노태우대통령 정권시절부터 개발되어오던 서

해안 간척사업으로 공단과 항만, 농수산단지과 관광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 개혁과 농외소득 향상을 선도한다는 목적하에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규모가 40,100ha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업이라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음은 물론, 96년 보다 작은 반월공단 주변의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와, 갯벌에 대한 환경훼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 대립은 새만금갯벌에 생명과 평화를 소원하는 모토로 지난 3월 28일부터

65일간 해양바다에서 광화문까지 종교인들의 삼보일배행진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두고 이것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새만금사업의 찬성의 목소리]

### 1. 사라지는 농지 대체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다.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ha의 국토확장과 쌀 14만 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 2. 부족한 수자원 확보

우리나라는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부족국가로 2011년에는 약 18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된다. 만경강, 동진강의 물을 담수하여 연간 5억3천5백만톤의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새만금호 11,800ha 조성은 중규모 저수지 200개 축조의 효과가 있다.

### 3. 수질관리 가능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공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며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도 시화호(10개월)에 비해 4배나 빨라 썩을 염려가 없다.

### 4. 연 13,390천명의 고용창출

사업시행 기간중 연13,390천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 [새만금사업의 반대의 목소리]

### 1. 새만금간척사업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대규모 간척사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 결정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이런 과정을 생략한채 정치권의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들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결정된 사업이다.

### 2. 서해안의 연안생태계가 꺾멸될 수 있다.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저서생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민물과 짘물이 교차되는 지점인지라 더욱 많은 생물 종이 살아가고 있으며 인근 연안 어류들의 산란장이 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친다. 벌써 방조제 밖에서도 어획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 3. 새만금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

새만금호 수질은 해제될 예정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묶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환경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경부의 종합대책 대로 수질대책을 세우더라도 부영양화의 원인인 총인이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류의 유속이 느려져 남해에서 변창하는 유독성 적조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4. 철새 도래지가 사라진다.

새만금갯벌은 북쪽으로 금강하구의 영향을 받고, 국내 유일의 강다운 강인 동진강과 만경강이 유입되고 있어 하구갯벌이 건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바로 이곳 새만금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 곳에 186종 118만 4000마리의 철새가 관찰되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특히 도요새의 경우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한다.

5.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온다.

방조제 축조 60% 공정을 마친 현재 이 방조제를 막느라 국립공원안의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방조제 외에 138km의 방수제를 막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의 산이 수십 개가 들어가기도 모자랄 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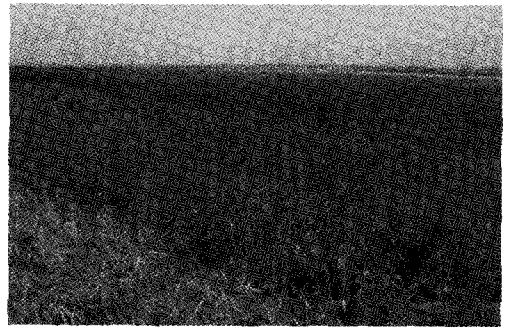
6.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방조제 60%를 완성한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도 1조 250억원이

며, 방조제를 완공하고 내부개발과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오염 방지와 관리를 위해 앞으로 몇십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7.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논과 밭이 농민한테 목숨이라면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 목숨이다. 바다와 갯벌이 없어지면 어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어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은 갯벌에서의 1년 벌이도 안된다고 한다.



찬성 · 찬성 · 찬성

리플을 달아주세요!!

Re : 간척사업은 가능하다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 도비도 간척지를 예를 들어보면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고 새로운 문화사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간척사업은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ykjee77

Re : 간척사업이 중단되면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시설들의 철수 비용문제 등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총당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척이 되면 갯벌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넓은 국토를 얻게 된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꼼꼼히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반대를 하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간다. hjh1209

Re :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간척사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moonsun02

Re : 새만금사업은 향후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물부족 사태를 대



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전 문제와 결부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상당부분 방조제가 완공된 이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면 토석유실로 인한 갯벌의 황폐화로 환경과 우량농지 모두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choi1596

Re : 새만금은 친환경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외곽 공사가 90% 이상 완료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중지하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문제 뿐만아니라 그렇게 살리고자하는 갯벌도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미 방조제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막아져 있기 때문에 조류흐름 변동으로 전과 같이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 줄어드는 농지 확보차원에서 계속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쌀이 남아돌지만 쌀값이 국제경쟁력에서 경쟁이 되지 않으니 쌀을 생산하기위한 농지 확보는 무의미하다고들 하지만 내일일은 모르는 것이다. kyujae98

Re : 새만금은 전복의 미래자산이 될 것이며 우리의 생명지기가 될 것이다. 시화호를 거론하며 간척사업의 일부분인 수질오염을 지적하는데 시화간척을 함으로서 서울지역의 공해공장 입지를 마련하고 인구분산을 시켜 안산시가 공단 및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은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경제에 끼친 공로가 훨씬 크다고 본다. js77

Re :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사라지는 농지를 대체할 토지가 조성되고, 수자원도 확보하게 되며, 상습침수지역은 피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haha77

Re :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간척사업은 완료되어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서해안에는 좋은 항구가 없으므로 항구와 더불어 물류기지를 만든다면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 바다를 다 막지 않고 이동통로를 만든다면 일석이조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관광국가가 아니다. 갯벌을 살리려고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면 지금처럼 세계화시대엔 지금의 농어민들처럼 우리국민이 찬밥신세 scseo123

Re :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2년여 기간동안 민관공동조사를 마치고 정부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결정은 올바른 것으로 수용하고 반대 의견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hhjmk

반대 · 반대 · 반대

리콜을 달아주세요!!



Re : 갯벌은 정화작용, 수산물제공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장,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효과 등 경제적, 미적, 교육적, 관광적 가치가 큰 국가적 자원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빈

대(농지 확보)를 잡으려다 초가삼간(환경훼손, 국가자원낭비) 태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새만금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1조원이라고 할 때 2년이면 회복되는 것이지만 계속 간척을 강행해서 갯벌을 훼손하면 후손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지 못하는 등 더 커다란 죄를 짓고,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wonji

Re : 새만금의 갯벌은 강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강의 환경미화원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을 하는 것은 갯벌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며 철새들의 보금자리 또한 파괴하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은 알겠지만 만약에 간척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보다 더한 돈이 새만금 주위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쓰일 것이다. jaebagi

Re : 최종 부지조성 완성에 비하면 지금까지 한 공사는 새발의 피이다. 아직도 지금보다 수십배의 공사비용을 더 들여야 하고 많은 산을 없애야 메울 수 있다. 즉 산, 바다 이종의 파괴를 가져온다. 그리고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환경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그 수산물 생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다. 그것이 일부 이익집단으로 가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나눠진다는 것이 이익집단은 속상하겠지만... 일부 땅 소유자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잔치를 만들겠습니까? ecoact

Re : 세계최대의 방조제공사는 세계최대의 갯벌과 연안생태계의 파괴이다 갯벌과 연안생태계도 농지이상의 생산적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 갯벌이 많다지만 세계적으로 갯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농지는 현재 있는 농지를 잘 관리 활용하면 식량자족자급에 큰영향이 없다 간척하여 비싼 땅장사하려는 속셈이다. 만경강과 동진강하구를 한번에 막는 것은 육지와 해안 생태계를 한번에 파괴하는 것이다 ssangigy

Re : 진짜 식량을 걱정하신다면 각종 개발로 없어지는 농지를 함께 지킵시다. 20년이나 걸려서 6조원이나 들어서 그 많은 생명들을 죽여서 새만금에서 얻을 수 있는 농지가 3만ha가 약간 못된다. 매년 각종 개발로 그 정도의 농지가

그냥 없어지고 있다. 진짜 식량 걱정을 한다면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우리쌀 지키기운동에 함께 합시다. horii

Re : 이 사업은 그 이유와 경위,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계속해야한다.', '친환경적으로 예산 더 투입해서 계속 하자' 이런 식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업은 그 시작에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쳤었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공사 내내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다. 모든 건 충분한 사전조사와 여론수렴이 없는 상황에서 강행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withsmoke

Re :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일할 인력이 없어서 남아도는 농경지가 준비하다. 무슨 농경지 부족 타령인지? 물론 투기할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 glow99

Re : 물은 고이면 썩는 다는 진리를 모르는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보다 더 이전에 간척했던 시화호를 어떻게 해 보려다 대책이 없어, 결국은 포기하고 해수를 받아들이고 있다. 농업기반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이후 해결할 방법들이 나온다고. 그러나 결국 시화호를 포기했다. 이것은 스스로 새만금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계속 끌고왔던 사업을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상황에서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들에 대한 많은 모색들이 되어야 한다. jkyun

